

응급실 의사 폭행사건, 청와대 국민청원

“술에 취해서 범죄 저지르는 이들에 사회가 너무 관대하다” 해당 청원 어제 3천명 웃돌아... 가해자에 강력한 처벌 요구 호소

술 취한 환자가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의사를 폭행한 사건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까지 번지는 등 확산 일로에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3일부터 “검육에 갔다 와서 칼로 죽여 버리겠다”는 섬뜩한 제목의 글이 실렸다.

이 게시판에는 최근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의사 폭행 사건 관련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원인은 “술에 취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에 대해 사회가 너무 관대하다”며 “자신을 치료해주는 의료인을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폭행을 하고

“검육에 갔다 와서 죽여버리겠다”는 극악한 협박까지 하는 세상이다.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올 지경”이라고 했다. 이에 청원인은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4일 3천명을 웃돌고 있다. 한편 대한개원의협의회도 지난 3일 서명을 통해 정부와 사법당국이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의료진 폭행 사건을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개협은 “정부는 공권력을 발휘해 더 이상의 병원 내 의사 폭행 사건

발생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들도 이번 사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요구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대개협은 “국민들이 안전한 진료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응급실 및 진료 현장에서의 무차별 의료진 폭행에 대해 국민들도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목소리를 내 주길 바란다”면서 “이는 국민 여러분 자신 또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닥치지도 모르는 비극을 막는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익산=우병희기자

익산시 중앙동 ‘괜찮아’ 브런치 카페, 착한가게 5호점 현판 전달식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익산시 중앙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박천식)는 지난 3일 브런치 카페 ‘괜찮아’(대표 이선영) 5호점과 나눔협약을 체결하고 착한가게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 ‘괜찮아’ 카페는 갈산동 이리중앙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한 감성 있는 브런치 카페로 아기자기하고 센스 있는 소품과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브런치 요리와 향긋한 커피가 있어 특히 여성 손님들이 즐겨 찾는 카페로 입소문이 나있다. 이선영 대표는 “진한 커피향처럼 나뭇잎의 향으로 가득한 행복한 동네가 되었으면 좋겠고, 작은 금액이지만 이웃과 함께 사는 훈훈한 정을 나눌 수 있게 되어 행복하다.”고 말했다.



이범용 중앙동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의미 있고 뜻깊은 지역사회의 나눔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착한가게에 감사를 드리며 이를 계기로 이보다 더 기부문화가 지역에서 더욱 확산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착한가게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하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가게 수익 중 매월 최소 3만원 이상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기부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가게다. /익산=우병희 기자



군산해양경찰서는 미래 해양주역으로 성장할 청소년들에게 해양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찾아가는 연안 안전교실 교육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군산해경, 찾아가는 연안 안전교실 프로그램 운영

도내 초·중·고생 대상 해양안전 중요성 알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종욱)는 미래 해양주역으로 성장할 청소년들에게 해양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찾아가는 연안 안전교실 교육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4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29일까지 전북 도내 17개 초·중학교 1,296명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연안 안전교실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치고 여름방학을 맞아 체험형 해양안전교실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찾아가는 연안 안전교실 프로그램은 2014년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학생들에게 해양안전 교육을 알리기 위해 도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2015년에 처음으로 시작해 매년 지원하는 학교가 많아 추첨을 통해서 대상을 선

정할 만큼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해양안전 전문화 확산을 이끌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청각 자료를 이용한 해양경찰 소개, 생존수영법, 갯벌·물놀이 안전수칙 등을 교육함으로써 학생들의 집중도를 높였고 올바른 구명조끼 착용과 심폐소생술 실습도 진행했다. 김대식 해양안전과장은 “올해 찾아가는 연안 안전교실은 내륙 지역 위주, 중학교 제외, 시간당 30~40명 위주의 교육진행으로 참석학생 100%가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며 “특히 생존수영, 심폐소생술 등 스스로를 지키고 타인을 구할 수 있는 교육으로 안전한 물놀이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기자

군산시보건소, 지역사회 재활사업 성과대회 최우수상 수상

군산시 보건소(소장 정현태)는 2018년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통합 성과대회에서 우수사례 포스터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 누리꿈스퀘어에서 개최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통합성과대회는 전국 광역시도와 지자체 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재활사업 성과에 대한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최되는 행사다. 이번 대회에서 군산시는 관내 특수학교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올바른 성 가치관 확립을 위한 성(性) 인권교육, 1대1 맞춤형 작업치료,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방송댄스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사회적으로 소외된 지역사회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재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장애인의 재활을 돕고 사회 참여를 증진시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보건소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가정방문 재활서비스로 재활운동 치료 및 만성질환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발생 예방 교육, 재활보조기구 무료 대여사업 등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군산=김정훈기자

익산시,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사업’ 선정

인화동 근대건축물 지역 특화자원 선정, 총사업비 1억여원

익산시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2018년 도시재생뉴딜 ‘소규모 재생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환으로 진행된 ‘소규모 재생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단위 사업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주민주도 도시재생사업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익산시는 인화동 일대를 사업대상지로 선정, 도시재생이카페의 심화과정을 개설하고 집중검토회의를 진행함으로써 주민들이 직접 지역현안에 대해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세부계획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예산지원이 동반되어야 할 사업, 당장 추진해야 할 사업과 중·장기적으로 준비할 사업들로 나눠 사업계획을 구상하였고, 근대건축물을 활용한 프로그램 사업을 최종 사업계획서로 제출했다. 인화동 근대건축물을 지역 특화자

원으로 선정하고 총사업비 1억여원의 예산으로 근대건축물 보전·활용 교육, 기록물 발간, 영상제, 근대역사 공간지도, 환경복화 등 지역기치자산을 활용한 프로그램 사업을 통해 도시재생의 토대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확대·발전시켜 대규모 국비 확보는 물론 전국적 명성의 도시재생 성공사례로 발돋움하겠다는 복안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은 그간의 도시개발사업과는 달리 주민들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사업의 성과를 좌우한다”며, “도시재생을 위해 준비해왔으며 긴 호흡으로 지역을 재생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민들에게도 눈앞의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을 바라보고 지역발전을 위한 많은 응원과 동참을 당부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익산시, 미륵산 권역사업 마무리

익산시가 역점으로 추진 중인 미륵산 권역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4일 익산시에 따르면 미륵산 권역사업은 삼기면 연동리(연동, 석불, 채산, 축적)와 기산리(현동)지역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41억원을 투자, 다목적센터(다목적적실, 건강실, 카페, 사무실), 주차장, 및 체험장 마을회관 리모델링, 마을모정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인 미륵산 권역사업은 지역주민들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를 통해 추진된 사업으로 2018년부터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들어갔으나 그동안 지역주민과 추진위원회 내부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체됐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새로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마을간 양보와 협



치를 통해 갈등을 극복하면서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았다. 미륵산권역은 미륵산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등산객의 방문이 많아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등산로 입구인 죽장마을에 방문자센터와 주차장 그리고 및 체험장을 집적화하여 권역발전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7월 현재는 대부분의 시설이 완공,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을 통한 문화·복지향상과 농업의 소득사업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익산=우병희기자

군산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활동

군산시는 공공기관에서 술잔수령하여 환경보호에 앞장서고자 정부에서 추진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에 따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사용량이 가장 많은 1회용 컵 사용 줄이기를 중점 추진하여 사무실에서 1회용 컵을 전면 금지하고 개인용 컵을 사용하며 민원인 방문 시에는 1회용 컵을 버리지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다짐하고 있다. 또 회의나 행사 시 식수대를 비치해

페트병 사용을 자제하고 물품 구매 시에는 재활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며 청사에 1회용 우산 비닐커버 대신 빗물제거기를 설치하는 등 1회용품 사용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진희병 자원순환과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여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 속의 작은 실천운동을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산=김정훈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